



[라벨링] 이탈리아, 유제품에 새로운 동물복지 인증 표시 제도 제안

- 동물복지단체-환경단체 공동...6단계 사육방식으로 나누어 표기 제시



이탈리아에서 유제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가 제안되었다.

최근 국제동물복지단체인 CIWF(Comassion in World Farming)와 환경단체가 낙농산업의 투명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폭 넓은 제품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표시 제도를 새롭게 제시했다.

이에, 젖소의 사육환경에 따라 0단계 자연방목부터 5단계 집약적 사육까지의 기준을 기반으로 총 6단계로 나누어 유제품에 표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시키는 물론 가축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낙농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foodnavigator.com, 4월 6일 >

[업계동향] 美, 지난해 식물성 대체식품 판매 27% 증가

- 약 7조 8천억원 매출 달성...식물성 우유 점유율 15%로 지속 확대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식물성 대체식품 소매판매가 동물성 식품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물성 식품협회와 굿푸드 연구소가 시장조사기관 스프인스(SPINS)를 통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식물성 대체식품 소매판매가 27% 증가하며 70억 달러(약 7조 8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57%의 가정이 식물성 대체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건 육류와 식물성 우유 판매량은 동물성 육류와 우유에 비해 두 배나 빠르게 증가했고, 식물성 우유의 달러 매출은 20% 증가하며 25억 달러(약 2조 8천억원)를 달성했다. 현재 식물성 우유는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의 3분의 1 이상(35%)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가정의 39%가 구매했고, 일반 우유를 포함한 전체 우유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동물성 식품 소비는 줄이고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 식물성 대체 식품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vegnews.com, 4월 7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